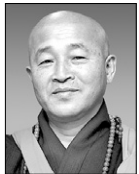


일주 문



송광사 금강산림법회서법문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11월 25일 순천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서법문한다. (061)755-010



제15회 불교인권상 시상식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은 1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5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02)734-6401



부천경승단 순직경찰관 추모위령재
부천 대덕사 주지 성인 스님(부천남부경찰서 경승실장)은 11월 17일 부천남부경찰서에서 순국선열의날 추모위령재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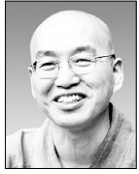
법현 스님 원불교서 불교강연
태고종 부원장 법현 스님은 11월 18일 원광대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에서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의례와 수행'을 강의한다.



창건 14주년 기념법회 봉행
천태종 대전 광수사 주지 도정 스님은 11월 3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전 건설'을 주제로 창건 14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관문사 사랑의김장행사
천태종 서울 관문사 주지 영제 스님은 11월 21일 김장을 담아 우면동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50세대에 직접 전달한다. (02)3460-5300



평화재단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11월 17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경주캠프 입학 30주년 출가명대이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은 11월 14일 교내 백생관 컨벤션홀에서 '입학 30주년 79학번 출가명대이'를 개최했다.



동산불교대 창립 27주년
동산불교대학 안동일 이사장은 11월 20일 동산창립 27주년 기념 '동산인의 밤' 및 바자회를 봉행한다. (02)732-1206



포교사단 대의원 총회
포교사단 강홍원 단장은 11월 29일 1시 대전보문고등학교에서 대의원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회를 개최한다.

“몽골 청소년의 꿈 지원할 터”

지구촌공생회 월주 스님, 몽골에 ‘공생청소년센터’ 건립

“몽골 청소년들이 꿈꾸는 희망이 몽골 공생청소년센터에서부터 펼쳐 질 것입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11월 10일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 시 게르촌에 ‘몽골 공생청소년센터’를 건립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월주 스님은 “교육 문화와 관련된 인프라가 전무한 게르촌 청소년을 위한 지적·정서적 능력개발의 기회를 줌으로써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토양을 제공하고 싶었다”며 “몽골 청소년들의 꿈이 이곳에서 싹틔길 바란다”고 말했다.

몽골 공생청소년센터가 자리한 울란바토르 시 외곽은 1990년대 시장 개방 이후 이주한 주민들로 천막형 가옥인 ‘게르’와 판자집들이 밀집된 몽골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정부의 재정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식수



11월 10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열린 ‘몽골 공생청소년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월주 스님(가운데).

등 최소한의 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특히 대다수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과정조차 이수하지 못하는 등 청소년 교육문제는 심각하며, 최근에는 교육의 부재가 청소년 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촌공생회는 이러한 게르촌에서 공생청소년센터가 진행되는 도서관 운영과 컴퓨터 수업과 한국어·영어 등

간접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을 비롯해 사무차장 화평 스님, 몽골 고려사 주지 경산 스님, 주몽골 대사, KOICA 이종구 소장, 몽골 항공구청 아트경비관 비서실장, 허성조 재몽골 한인회장 등 내외의 과 학생들 100여명이 참석해 추위 속에서도 자비와 사랑의 훈훈한 열기를 내었다.

간접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을 비롯해 사무차장 화평 스님, 몽골 고려사 주지 경산 스님, 주몽골 대사, KOICA 이종구 소장, 몽골 항공구청 아트경비관 비서실장, 허성조 재몽골 한인회장 등 내외의 과 학생들 100여명이 참석해 추위 속에서도 자비와 사랑의 훈훈한 열기를 내었다.

東大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세계적 미·러연구기관 분소 개소식

세계적인 미·러 연구기관의 분소가 동국대에 개소했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11월 10일 러시아 과학원 산하의 IMT(Institute of Microelectronics Technology), 미국 UCLA의 CNSI(California NANO system Institute)와 각각 MOU를 체결하고 두 기관의 분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연구분소 개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세계 수준의 해외우수연구기관을 유치해 국내 R&D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NT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인 IMT는 기존 반도체 소자의 한계를 극복할 나노재료인 그래핀(Graphene) 연구의 발전지로, 동국대 분소 운영에 향후 6년간 222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00년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NT, IT, BT 분야 융합연구를 위해 설립한 CNSI는 IT분야 분소 운영에 향후 6년간 67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동국대·IMT-RAS, UCLA-CNSI간 MOU체결에서 각 대학 대표들이 상호협력에 다짐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은우 국제협력국장은 “동국대에 설치될 IMT와 CNSI 분소는 국내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개발로 미래 유망기술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 강태원 소장은 “두 연구기관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활용해 신개념 반도체 정보소자를 개발하고, 개발기술을 산업체에 적극 이전해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민다나오 종교 평화 정착 지원

5일 ‘종교문화간 대화 센터’ 개원

종교평화국제사업단(IPCR, 이사장 최근덕·성균관 관장)은 11월 5일 필리핀 민다나오에 종교간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종교문화간 대화센터’를 개원했다.

종교문화간대화센터는 △종교 전통 계승 △청소년 교육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이웃종교·문화·평화교육 등을 진행한다. 종교평화국제사업단은 이번 민다나오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전 세계 종교갈등지역의 선례로 삼아 종교평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덕 이사장은 개원사에서 “종교

문화간대화센터 개원으로 민다나오의 평화 정착이 앞당겨 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계를 대표한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재경 스님을 비롯해 최근덕 이사장, 권오성 한기총 총무, 김동완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 민족종교협의회장 등 한국 각 종교대표들이 참석했다.

또 비송 울라마 회의 페르난도 카팔라 대주교와 민다나오 이슬람 지도자 20여명, 개신교 지도자 10명 등 총 10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박선주 기자

친목도모·화합 위한 축구 대회

9일 은해사, 영천경찰서와 친선전

영천 은해사(주지 둔관)는 11월 9일 영천경찰서(서장 박영진)와의 친선 축구 경기를 개최했다.

지역의 지인을 책임지는 영천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상호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한 이날 대회에는 은해사 주지 둔관 스님을 비롯해 본사 국장

스님과 말사 주지 스님 등 대종스님, 박영진 영천경찰서장 등 영천서 전직원 100여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6대 6으로 끝났으며, 경기 후 둔관 스님은 영천경찰서에 격려 금일봉을 전달했다.

박선주 기자

‘오픈 아이 캠페인’ 개안 수술

10일 로터스월드, 5200여 후원자 참여

국제개발구호단체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11월 10일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캄보디아 문 세이하(Mun Seiha, 6세)의 시력회복을 위해 서울 김안과병원과 함께 개안수술을 진행했다.

로터스월드는 2008년 6월 현지에서 문 세이하군의 ‘선천성 백내장’을 진단하고 지난 6월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해피로그 ‘오픈 아이 캠페인’(Open Eye Campaign)을 펼쳐 5200여 후원자의 참여로 초경 및 수술경비를 마련했다.

이번 수술 일정은 11월 5일 로터스월드 직원과 함께 입국해 7일 병원에 입원 후 10일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었다.

로터스월드의 민정희 팀장은 “수술 검사 결과 현재 시력을 되찾은 상태다. 하지만 선천성 백내장은 수술 후 시력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



개안수술을 받은 문 세이하(Mun Seihah)군.

도 시력교정을 하며 지켜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안과병원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는 자외선이 강해 주민들이 시각장애 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 아동 백내장수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한데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자질을 갖춘 마취전문의와 마취시설이 전무하다”며 “시력이 완전히 발달하는 8, 9세 이전

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 문 세이하 군을 한국에 초청해 수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로터스월드의 캄보디아 지부인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아동센터에서는 김안과병원의 지원하에 수술실을 마련해 연간 200여 주민들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백내장·의상편 수술 등 시력회복 지원사업과 의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박선주 기자

이명박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시켜야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방위의 핵심입니다.

- ◇ 한미연합사가 존재함으로써 전쟁을 억지할 수 있고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됩니다.
◇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현저히 약화됩니다.
◇ 북한 핵에 대한 대응태세가 약화되고 첨단장비와 정보능력이 절대 부족하게 되는 한편, 우리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북한은 핵 실험으로 우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은 반드시 연기되어야 합니다
◇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대남적화 전략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북한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와 핵실험을 했으며, 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안게 되었습니다.
◇ 북한은 그간의 남북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선군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한미연합사를 굳게 지킵시다. 한미연합사가 존재해야만 안보불안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잘못 시작한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을 연기시키는 데 불교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10

북한 핵 폐기·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 공동회장 박 희 도
1,000만명 서명추진본부 공동대표 회장 김 영 관

참가단체 :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성우회, 재향영우회, 한기총, 대불총, 가톨릭 등 종교계, 자유시민연대 등 227개 안보단체